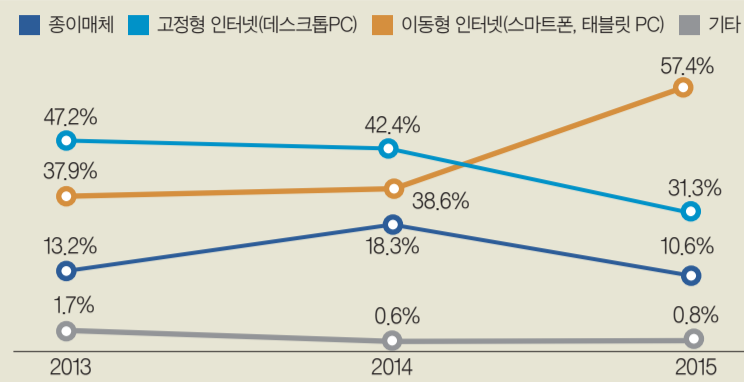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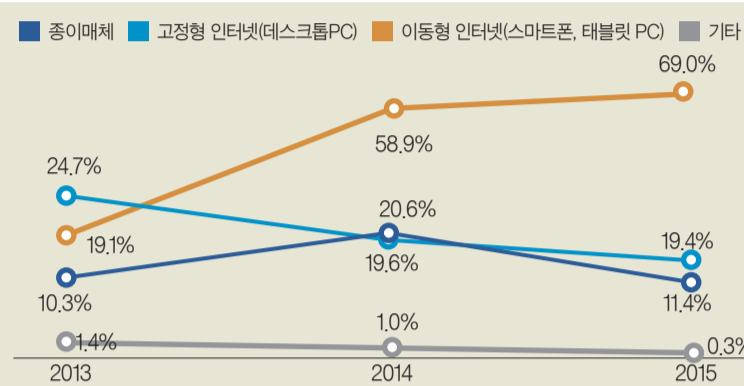
돌아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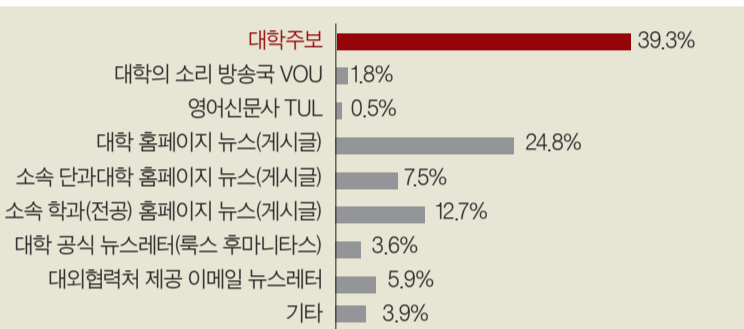
교내 소식을 접할 때 가장 자주 활용하는 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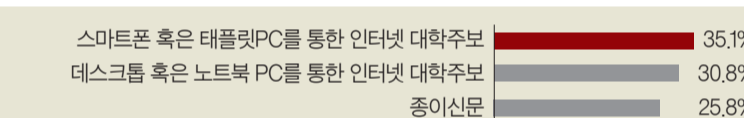
앞으로 교내 소식을 접할 때 자주 활용하기 원하는 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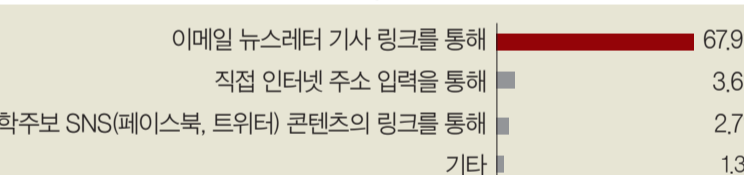
다음 매체 중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어떤 방법으로 대학주보를 이용하고 있나?(복수응답)



대학주보 인터넷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학주보를 이용할길 원하는가?



설문방법 : 이메일 설문조사
설문조사 기간 : 2015-05-11~2015-05-13
총 응답자 : 387 명
응답자 정보 : 학부생 230명 / 대학원생 75명 / 직원 55명 / 교수 24명 / 기타 3명

▶1면에서 이어짐

그러나 현재 우리학교의 미디어환경은 이동형 인터넷, 즉 모바일에 최적화돼있지 않다. 당장 우리신문의 이메일 뉴스레터에 대한 40건의 불만사항이 '모바일에 최적화된 화면이 뜨도록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 '이메일 편집이 모바일에 적합하지 않다. 가독성을 높여야 한다' 등인 점도 같은 맥락의 문제다.

응답자의 36.5%가 '주로 정보를 취득하는 매체'로 꼽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뉴스, 소속 단과대학 홈페이지 뉴스, 소속 학과 홈페이지 뉴스 등도 모바일 환경에 부적합한 점도 심각한 문제다. 기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모바일 접속시 글이 잘 보이지 않거나, 심각한 페이지에서는 깨짐 현상까지 나타나는 상황이다.

지난해 개편이 완료된, 즉 1년 밖에 되지 않은 홈페이지가 이런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결국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기민하게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보 접근성'과 '사용자 편의'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했지만 PC를 기준으로 해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미 여러 대학이 추구하고 있는 홈페이지 운영정책은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모형이다. 특히 올해 '웹어워드 코리아' 교육부 문 통합대상을 수상한 고려대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디바이스 해상도에 맞춰 화면이 동적으로 변환되는 반응형 웹 방식을 이미 구축한 상태다.

신문방송국 내 매체들 역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영어신문사의 공식 홈페이지(media.khu.ac.kr/khul_eng)는 작년 11월 이후 게시물이 없어 사실상 운영을 중단했다. 대신 현재 워드프레스(Wordpress)사이트와 페이스북 페이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기존 홈페이지가 모바일 환경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영어신문사 김태홍(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13) 편집장은 "이미 소비자들은 간편하고 빠르게 정보를 소비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모바일 기반 매체가 이를 잘 충족시켜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발 맞춰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접속시 홈페이지 이용이 불편하다

VOU 역시 비슷한 사정이다.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오디오 방송과 선곡표 등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지만, 영상은 오류 발생으로 인해 원활한 게시가 되지 않고 있다. 결국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의 채널로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캠퍼스 VOU 최태환 실무국장은 "옛날 형식을 사용하는 공식 홈페이지를 모바일로도 접속이 가능하게끔 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시대의 유훈으로 치부되는 종이매체에 대한 고민도 이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래 '우리학교 소식을 접할 때 가장 자주 활용하는 방법'으로 종이매체를 꼽는 독자가 10%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매체를 선호하는 고정독자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결국 학내 매체 모두 모바일 중심의 이동형 인터넷 매체를 강화하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매체생산을 병행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지닌 상황이다.

국가 연구개발비(R&D) 부정수급 신고 안내

신고 대상

연구개발비(R&D) 유용, 횡령, 부당집행 등 부정사용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 물품 구입
-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
- 연구비 집행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서류 제출
- 연구기자재, 재료비 구입비 부풀리기 등

신고 상담

전국 국번 없이 ☎110



신고 접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 ▶ 홈페이지 : www.acrc.go.kr
-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 팩스번호 : (02)2110-0678
-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신고 처리

자체 조사 후 검·경찰,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이첩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분보호 등
- 신고자 보상 : 보상금 최대 20억 원, 포상금 최대 2억 원

